

# 팬심 못 얻은 설움... 베스트12 탈락

올스타 선수단 투표 압도적 1위 kt 박영현·안현민 결국 제외돼 팬 투표서朴 마무리 투수 꼴찌 安은 지명타자 부문 3위 그쳐 올 시즌 뛰어난 성적에도 눈물



프로야구 kt wiz의 마무리 투수 박영현과 '괴물 중공 신인' 안현민이 올스타 선수단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베스트 12에 선정되지 못했다.



KBO가 23일 발표한 2025 신한 SOL뱅크 올스타전 베스트 12 투표 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영현은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부문에서 선수단 투표 113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선수단 투표 2위는 68표의 김택연(두산 베어스)으로 박영현과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러나 팬 투표에서 박영현은 24만2148표를 받는 데 그쳐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후보 5명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스타 투표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낸다. 박영현은 결국 총점 14,43점으로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부문 5위에 그쳤다.

김원중(롯데 자이언츠)은 선수단 투표에서 63표로 3위였지만 팬 투표에서 15만 4509표를 받아 총점 35,41점을 획득, 통산 세 번째 올스타 베스트에 뽑혔다.

박영현은 21세이브를 기록하며 시즌 구원 1위에 올라 있다.

20세이브로 구원 2위인 김원중은 그렇다고 쳐도 6세이브로 구원 부문 10위인 이호성(삼성 라이온즈)도 박영현을 앞섰다.

이호성은 선수단 투표에서는 26표로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부문 최하위였으나 팬 투표에서 79만여 표를 받아 총점 17,900점을 기록하며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2위가 됐다.

지난 시즌 1군에 데뷔했으나 올해 신인왕 자격이 있는 안현민은 타율 0.331, 홈런 13개, 43타점 등 '거의 외국인 타자급'이라는 평가받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프로야구 kt wiz의 마무리 투수 박영현과 안현민이 올스타 선수단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도 베스트 12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영현이 지난달 25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kt wiz 대 키움 경기 9회 말에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무려 221표를 획득했지만, 팬 투표에서는 57만 여표로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 3위에 그쳤다.

결국 총점 30,29점을 받은 안현민은 35,45점의 전준우(롯데)에게 밀렸다.

전준우는 팬 투표 148만여 표로 1위, 선수단 투표 71표로 2위였다.

이 부문 팬 투표 2위는 81만 표를 넘게 획득한 박병호(삼성)였다.

kt는 2022년과 2023년 박병호 이후 최근 2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 멤버를 배출하지

못했다. 안현민이 올스타 베스트 12에 들지 못하면서 올해 신인왕 자격이 있는 선수로는 배찬승(삼성)이 유일하게 올스타 베스트 12에 뽑혔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3루수 부문 문보경(LG 트윈스)이 선수단 투표 113표로 가장 많이 받았지만, 총점에서는 19,66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김도영(KIA 타이거즈)이 팬 투표 109만 여표로 압도하며 2년 연속 베스트 12에 선

정됐다. 올스타 선수단 투표는 투표 기간에 경기장에서 당일 엔트리에 등록된 각 구단의 감독, 코치, 선수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해도 되지만 갑자기 1군에 올라온 경우나 부상 등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투표하는 편"이라는 게 KBO 관계자의 전언이다. 올해 선수단 총 유효 투표 수는 352표였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 "37억 위약금 물고도 매각" 토트넘, 손흥민 방출가능성

## 현지 언론 "올 여름 靑투어 전 이적시킬 수도"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와의 계약이 1년 남은 손흥민(32사진)의 거취에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토트넘이 올여름 한국 방문 이전에 손흥민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하는 토트넘홋스퍼뉴스는 23일(한국시간) 토트넘이 무출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손흥민을 올여름 아시아투어 이전에 이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팬 사이트 릴리 화이트 로즈 운영자로 토트넘 사정에 밝은 존 웨넌은 토트넘홋스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약금 규모를 200만 파운드(약 37억 원)로 추정했다.

그는 "손흥민은 여러 클럽과 연결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면 이적료는 5000만~6000만 파운드, 다른 곳으로 이적하면 3000만 파운드 정도 될 것"이라

면서 "좋은 제안이 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한국 경기에 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거래할 거로 확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약금이 있다면 이적료에 포함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영국 방송 BBC는 지난 18일 "손흥민이 다음 시즌 시작 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단은 투어 주최 측과의 문제 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흥민이 투어에서 빠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토트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올여름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내달 31일 홍콩에서 아스널(잉글랜드)과 먼저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8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대결한다.



# 한화 LPGA 국가대항전 한·미·일 등 7개국 출격

오는 10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대항전 성격의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7개국 3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24일 여자골프 세계랭킹 기준으로 출전 국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전 국가와 출전 선수는 국가별 세계랭킹 상위 4명의 랭킹 합산으로 정했다. 미국이 합산 점수 1위로 출전하고 한국, 일본, 태국, 스웨덴, 호주, 중국이 뒤를 이었다. 출전 선수는 LPGA

투어 AIG 여자 오픈 종료 이후 세계랭킹이 발표되는 8월4일 확정된다. 7개국에서 4명씩 출전하고 따로 월드팀 4명을 뽑는다. 월드팀에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 브룩 헨더슨(캐나다)의 합류가 거의 확정적이다.

2014년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한국은 지난 2018년 우승했다. 올해 대회는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